

OX 퀴즈로 알아보는 가을 캠핑, 이것만 조심하자

초보 캠퍼에게 이상적인 계절은 가을이 아닐까.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계절이니 말이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알아보면 큰 코 다친다. 가을 캠핑을 준비하는 초보 캠퍼를 위해
캠핑장에서 챙겨야 할 이모저모를 알아보자.

글_편집실



벌레가 뭐가 무섭니? 괜찮아!



야생 진드기는 흔히 5월에서 8월 사이에 왕성하게 활동한다. 최근에는 이상고온으로 인해 9월 이후에도 살아남아 사람들을 위협한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SFTS)과 쯤쯤가무시 병이 있다.

야생 진드기 피해를 막는 백신이 없는 탓에 예방이 최선이다. 풀과 잔디가 혼한 캠핑장에서 놀 때는 긴팔 옷을 입자. 진드기 기피제도 충분히 바르고 뿌리는 것도 기본. 풀숲 위에 앉을 때는 꼭 돛자리를 깔고 앉고 사용한 돛자리

는 씻어서 햇볕에 말리는 것도 잊지 말 것. 무엇보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샤워를 하면서 진드기에 물린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옷도 새로 갈아입어야 안전하다.

가을 뱀벌 무시하면 안 될걸?



봄벌이 가을벌보다 매섭다지만 다 옛말이다. 여름을 앞둔 봄벌만큼이나 가을벌 역시 뜨거운 게 요즘 날씨다. 자외선 차단에 소홀하면 피부미용을 해친다. 또 건조한 가을 날씨와 찬바람 역시 피부미용의 적이다. 햇빛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와 보습제도 꼼꼼히 발라주자.

선선한 날씨, 음식 안상하겠지?



생각보다 빨리 상한다. 음식은 가급적 아이스박스나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할 때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 아예 음식을 준비할 때부터 적당히 먹을 만큼만 준비하는 것도 요령이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정간편식이나 반조리식품을 데워 먹어도 좋다.

물론 캠핑의 낭만이라 할 수 있는 바비큐를 포기할 수는 없다. 고기를 구울 때도 주의 깊게 살피고 꼼꼼하게 굽는 게 좋다. 덜 익은 고기를 먹고 배탈이 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불조심? 설마 진짜 불이 나겠어?



쌀쌀한 밤에 지핀 모닥불은 따뜻하기도 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세 살 먹은 아이도 알듯이 불은 위험하다. 화로 대를 이용해 불을 피운다 해도 주변에 불꽃을 소제가 많다면 위험하다.

불을 피우기 전에 화로 대나 버너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둔다. 또 불을 피웠다면 끄기 위한 준비도 빼먹지 말자.

미니 소화기를 준비하고, 없다면 물통에 물을 담아 방화수로 사용해도 좋다. 불을 사용할 때 야외여도 텐트 안으로 연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 환기에도 신경을 기울이는 것도 잊지 말자.

옷은 최대한 가볍게?



9월까지의 열대야다 뭐다 하지만, 10월만 되도 일교차가 크게는 10℃ 이상 날 때도 있다. 낮 기온이 높아도 한 밤에는 추울 수 있으니 전기장판과 난로, 보온침낭 등을 꼭 챙기자. 자녀의 옷차림도 잘 살펴보자. 더울 때만 생각해서 반팔 옷만 준비하면 밤에는 추워서 고생할 수 있다. 두꺼운 점퍼 등으로 체온을 지켜주자. 추운 날씨에 대비해 미니 난로나 전기 히터를 준비하는 것도 대비책이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 사용하면 질식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자. 대신 두터운 침낭과 옷가지, 그리고 전기장판을 이용하면 충분히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다.

TIP



캠핑장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사람을 피해 떠난 캠핑이지만 사람을 피할 수는 없다. 타인에게 받는 피해가 싫다면 자신 또한 자신의 자리를 돌아볼 일이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떠난 캠핑장에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캠핑에티켓'들을 살펴보자.

✦ **안전, 또 안전** 캠핑장은 방심하면 다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화로 대가 쏠아져 불이 난다거나 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충분히 주의하며 다녀야 한다.

✦ **밤에는 조용히** 모처럼 놀러와 들뜬 기분은 이해한다. 그러나 대부분 캠핑장에는 에티켓 시간이라는 게 있다. 보통 밤 10시 이후로는 조명이 낮추고 말소리도 조용히 하는 게 좋다. 들뜬 어린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얼굴 붉히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른들도 문제. 얼큰하게 술에 취해 떠들다가 경찰까지 출동

한 사례도 있다.

✦ **술은 적당히, 담배는 지정장소에서** 모든 걸 술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술이 제일 문제다. 한잔 두잔 마시다보면 목소리도 커지도 밤늦은 시간임을 잊기도 쉽다. 그러다 옆 텐트와 시비가 붙고 싸우고... 설령 주량이 세더라도 다음날 철수할 때 숙취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술은 적당히, 혹은 조금만 마시는 게 상책이다. 무분별한 흡연 또한 문제를 일으키니 지정된 곳에서만 피우시길.

✦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다워야** 캠핑장에 따라 지정된 곳에 쓰레기를 버리게 안내한다. 만약 오지라면 발생한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와 버리는 게 기본이다. 캠핑한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캠핑으로 입문하는 첫걸음이 아닐까.